

[Market FAQ] 캐피탈업 2025년 상반기 실적 Review 및 Risk Profile 점검

2025.09.08

금융2실 전세완 수석연구원 02-787-2354 sewan.jeon@kisrating.com
 금융2실 정혁진 실장 02-787-2264 Hyuk-jin.chung@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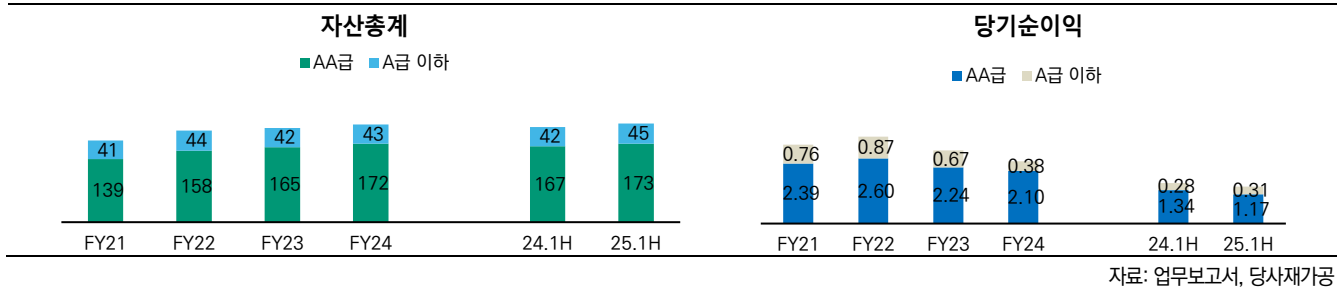
최근 금리 하락 등에 따라 캐피탈업권에 우호적인 조달환경이 이어지면서 업권 전반의 수익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등 재무지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PF 내 부실 사업장 정리 현황에 대한 질의가 꾸준한 가운데, 부동산PF 외 영업자산을 중심으로 캐피탈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자산군별 Risk Profile 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Market FAQ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Q1.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실적은?

분석대상 23개 캐피탈사(당사 장기신용등급을 보유한 KIS Coverage 캐피탈사 27개 중 외사 Captive사 4개를 제외한 AA급 12개 및 A급 이하 11개, 이하 '분석대상 캐피탈사')의 2025년 6월 말 총자산 규모는 합계 21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합계 약 1.5조원으로 8.6%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등급별 실적은 다소 차별화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성장률이 AA급이 각각 3.1% 및 -12.6%, A급 이하가 각각 6.6% 및 10.9%로, A급 이하의 실적이 AA급 캐피탈사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일부 AA급 업체에서 순이익이 급감한 가운데, AA급이 오토금융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반면, A급 이하는 기업금융 등 고수익자산 취급을 이어간 영향으로 분석한다.

캐피탈사 합산 자산총계 및 당기순이익의 추이

(단위: 조원)



Q2. 최근 캐피탈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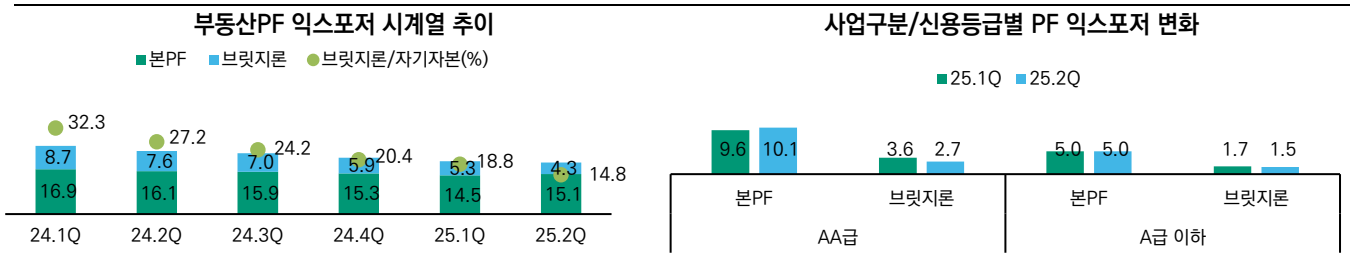
최근 AA급은 실적 변동성이 높은 투자금융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위험이 높은 부동산PF, 기업금융의 비중을 빠르게 축소하고 오토금융 취급을 늘리면서 저위험/저수익 안전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A급 이하는 부동산PF 비중을 줄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금융 부문 중심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 리스크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급 이하는 최근 과거 대비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업금융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 PF의 양적 부담이 잔존함에 따라 업체별 신규 취급 여신을 중심으로 사업위험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Q3. 2025년 상반기 부동산PF 정리 현황은?

2025년 6월 말 기준 분석대상 캐피탈사 합산 부동산PF 익스포저는 19.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8조원 감소하였다. 본PF 및 브릿지론의 잔액은 각각 15.1조 및 4.3조원이며, 2024년 3월 말 32.3%에 달했던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은 2025년 6월 말 14.8%까지 축소되는 등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저의 양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이어갔다.

캐피탈사 부동산PF 현황

(단위: 조원, %)



2025년 상반기 부동산PF 익스포저 변화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2분기에 사업구분(본PF/브릿지론) 및 신용등급별로 본PF와 브릿지론 익스포저의 변화 방향과 폭이 상이하였다는 점이다. 2025년 2분기에 브릿지론 잔액은 전분기 대비 약 1조원이 감소한 반면에, 본PF의 익스포저는 AA급의 신규 취급 확대로 약 0.5조원이 증가하였다. AA급의 신규 본PF는 비교적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위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PF 고정이하 익스포저는 2025년 6월 말 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1조원이 증가하였다. 고정이하여신의 증감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에 회수/정리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고정이하 익스포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PF 정리가 지연될 경우, 건전성 관리 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상각/제각으로 인해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부실PF의 정리상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Q4. 부동산PF 외 주요 자산군별 리스크 수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는?

할부/리스자산

신용카드사, 은행 등 타 업권의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 구성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AA급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중고차금융, 렌터카 등에 대한 취급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할부/리스자산 전반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소비자금융(개인/개인사업자대출)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은 중·저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따른 연체전이 등 건전성 저하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최근 연체전이율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대비 상승 추세에 있어 위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경기 둔화세가 보다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취급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문으로 판단한다.

기업금융

기업금융 부문의 업종별 취급 분포를 살펴보면, 부동산업, 건설업 등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비중이 높다. 신용등급별로는 AA급의 전체 기업대출(부동산PF 외) 합산 기준 연체율은 0.9%로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A급 이하의 기업대출(부동산PF 외) 합산 기준 연체율이 7.1%에 이르고 있다. A급 이하 기업대출 내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건전성은 지표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A급 이하의 기업금융 부문에 있어서 보다 주의 깊은 심사 등을 통한 집중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투자금융

업권 전반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유형, 투자방식, 목표수익률 등이 상이하고 개별 투자 건 별로도 투자구조와 위험통제방식 등이 차별화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투자금융의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자부자산과 다르게 회수성과 및 시기에 대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경기과 자본시장 업황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 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융 부문의 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자기자본 대비 부담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정 업종/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거나 자기자본 대비 투자금융 비중이 과중한 경우에는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한다.

Q5. 최근 조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캐피탈사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 현황은?

캐피탈업권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다. 추가 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기발행 차입부채를 상환/차환하거나 신규 영업자산 취급에 필요한 자금을 여전채 발행을 통해 대응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별도의 수신기능 없이 차입부채 조달을 대부분 시장성 차입으로 구성하는 여신전문금융사의 특성상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여전채 수요 증감으로 인한 지표 변동 민감도가 타 업권 대비 높은 만큼, 향후에도 면밀한 유동성관리가 필요한 점은 변함없다.

Q6. 향후 캐피탈업권에 대한 전망은?

캐피탈업권은 자산 성장세가 다소 조절되는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달금리가 하향안정화되었으나, 영업자산 취급 금리도 하락하고 있으며, 국내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오토금융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업 및 투자금융 부문에서도 타 업권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별 최종적인 수익성은 대손부담률 차이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부담이 누적되고 있으며, 비우호적인 국내 경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향후 소비자금융, 부동산PF를 중심으로 대손부담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각 업체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와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캐피탈사의 향후 실적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최근 캐피탈사는 보유 사업기반 및 사업전략에 맞추어 부동산PF 외 차별화된 부문에營業을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AA급의 경우 오토금융 등 안전자산에 집중하는 반면, A급 이하의 경우에는 기업금융 부문 취급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수익성 등 재무지표에 반영되면서 각 캐피탈사들의 향후 실적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Contents

Q1.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실적은?	4
Q2. 최근 캐피탈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는?	6
Q3.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정리 현황은?	7
Q4. 부동산PF 외 주요 자산군별 리스크 수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는?	10
Q5. 최근 조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캐피탈사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 현황은?	15
Q6. 향후 캐피탈업권에 대한 전망은?	16
Appendix. 분석대상 캐피탈사 2025년 상반기 주요 재무지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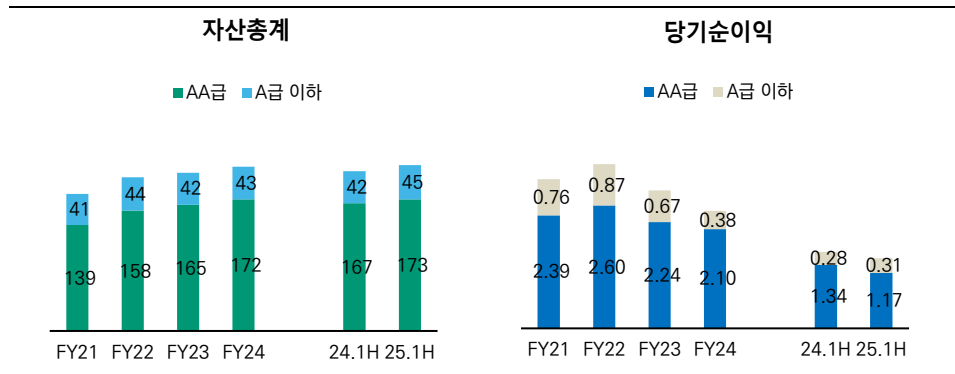
Q1.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실적은?

분석대상인 23개사(당사 장기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KIS Coverage 캐피탈사 27개 중 외사 Captive사 4개 제외한 AA급 12개 및 A급 이하 11개)¹ 기준 총자산 규모는 합계 217조원으로 전년 동기 209조원 대비 3.8% 증가하였다. 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2018년~2022년 대비 낮은 수준이나, 오토금융 경쟁심화, 부동산PF 부실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반해, 2025년 상반기 분석대상 업체들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가 감소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24년 연간 기준 전년 대비 약 15%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하락 폭은 다소 완화된 모습이나, 일부 AA급 캐피탈사에서 운용수익이 저하되고 대손부담이 지속된 점이 이익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캐피탈사 합산 자산총계 및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2025년 상반기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AA급과 A급 이하의 실적이 다소 차별화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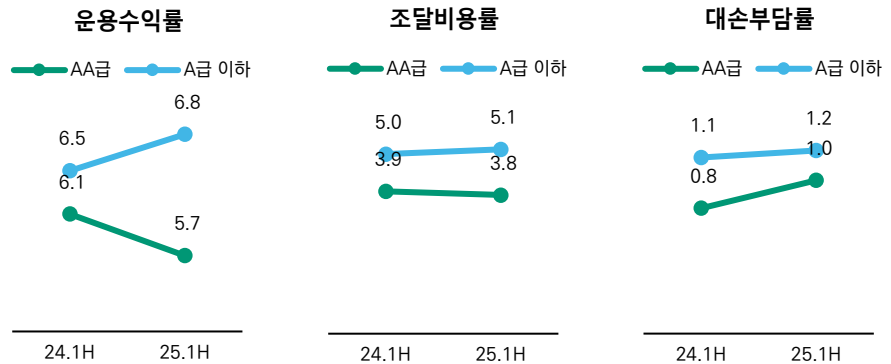
AA급과 A급 이하 캐피탈사의 전년 동기 대비 총자산 성장률은 각각 3.1% 및 6.6%를 기록하면서 A급 이하의 성장세가 더 컸으며, 당기순이익은 AA급 캐피탈사가 -12.6% 감소한 반면 A급 이하 캐피탈사는 10.9%가 증가하였다. 부동산PF 부실 확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비우호적인 산업환경이 전개되었던 2022~2024년까지는 AA캐피탈사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익성 하락 폭을 어느 정도 방어한 반면에, A급 이하는 자산규모가 감소하고 수익성도 크게 저하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에는 A급 이하가 AA급 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 수익성 지표별로 AA급과 A급 이하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조달비용률의 경우 공통적으로 하향세에 있으나, 기발행 차입부채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인다. 대손부담률은 일부 AA급의 부실 확대와 2024년 대규모 대손을 인식한 일부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기저효과 등으로 AA급의 상승 폭이 소폭 높았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AA급과 A급이 각각 1.0% 및 1.2%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운용수익률은 2025년 상반기에 AA급과 A급의 변화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2025년 상반기 수익성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A급 이하 캐피탈사는 전반적으로 기업금융 중심으로 신규 영업자산 취급을 늘리면서 운용수익률이 개선된 반면에, AA급에서는 리스크 관리 등 목적에서 자산성장세가 조절되면서 부동산PF 등 기업금융 의존도가 높은 캐피탈사의 운용실적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¹ 업체명 표기에서 캐피탈은 생략하며, 신용등급별 분석대상 업체는 다음과 같다
 AA급: 현대, KB, 하나, 신한, IBK, 산은, 현커, 우리금융, JB우리, BNK, 미래에셋, NH
 A급 이하: 메리츠, 롯데, 한투, 애뮤온, MG, 한국, 아이엠, 키움, 롯데오도, 케이카, 무림

신용등급별 수익성지표 추이(24.1H vs. 25.1H)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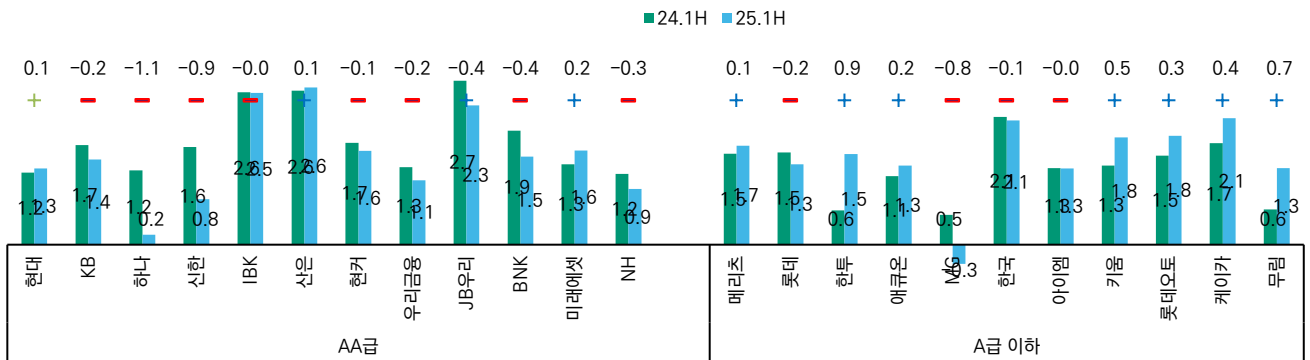
주) 업체별 지표의 단순 평균 기준이며, 이하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평균은 모두 단순 평균으로 계산함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분석대상 캐피탈사 중 2025년 상반기에 특히 ROA가 크게 감소한 캐피탈사는 하나와 신한이다. 하나와 신한은 전년 동기 대비 ROA가 각각 1.1%p 및 0.9%p가 감소하였다. 이는 과거 다른 캐피탈사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험자산 인수를 확대해온 결과로, 타 업체 대비 신한은 중후순위/지방 등 부동산PF 익스포저를 빠르게 늘렸으며, 하나는 해외 대체투자 관련 익스포저와 더불어 기업금융 등 익스포저를 빠르게 늘렸다. 고수익/고위험자산의 취급으로 두 업체는 2021~2023년 약 3,000억원~4,0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해당 시기에 취급한 영업자산에서 발생하는 부실 등으로 무수익여신규모와 대손부담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한편, MG의 경우에도 ROA가 크게 저하되었으나, 자체적인 사업요인보다는 외부변수인 최대주주 관련 이슈로 인해 조달비용률이 크게 상승하고 신규 영업이 정체되었던 영향으로 분석한다.

업체별 ROA 현황

(단위: %, %p)



주) 2025년 6월 말 자기자본 순, 이하 업체별 표기 시 동일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Q2. 최근 캐피탈사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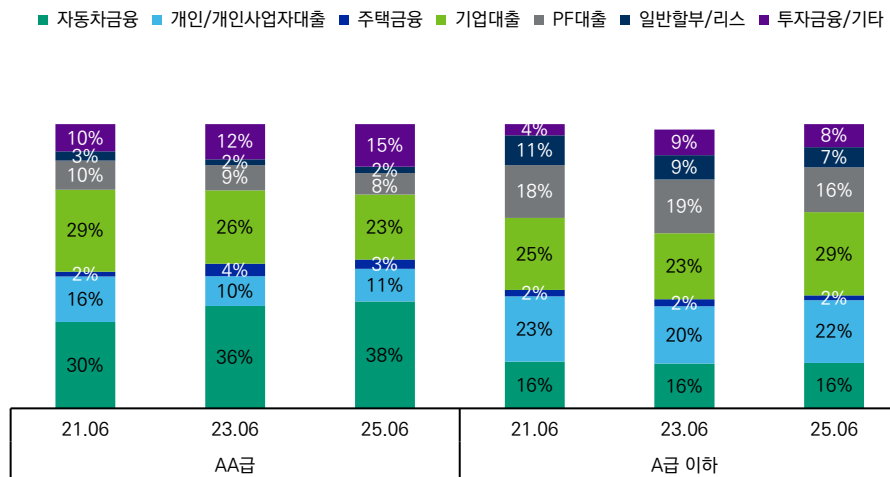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은 전통적인 전문 취급 부분인 할부/리스자산, 소비자금융(가계대출)과 부동산PF를 포함한 기업금융/투자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캐피탈사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주력 사업 부문에 집중하였으나, 해당 부문에 대한 카드사, 은행 등 타 업권의 진출 확대와 과거 저금리 기초 하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이 맞물리면서 캐피탈사는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영업자산을 빠르게 늘리면서 사업기반을 확장시켰다.

최근에는 또 다시 캐피탈사들의 영업자산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신규 부동산PF 취급이 제한되는 가운데, 2024년 6월 개정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부실 PF의 정리가 유도되면서 부동산PF 부문의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부문에서도 부실이 발생하면서 업권 전반으로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부담이 누적되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위험 관리, 신규 수익원 확보 등 차원에서도 자산포트폴리오 재배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A급은 변동성이 다소 높은 투자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부동산PF, 기업금융의 비중을 빠르게 축소하는 동시에 기존에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던 오토금융 등 저위험/저수익 안전자산을 늘리고 있다. 반면, A급 이하는 공통적으로 부동산PF 비중은 축소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금융 부문 중심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높은 자산 포트폴리오 리스크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급 이하 캐피탈사도 최근 과거 대비 심사기준 강화 등 기업금융 리스크 관리 기초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 PF의 양적 부담이 잔존함에 따라, 업체별 신규 취급 여신을 중심으로 사업위험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요 영업자산 구분별 Risk Profile 현황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Q3.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정리 현황은?’과 ‘Q4. 부동산PF 외 주요 자산군별 리스크 수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는?’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용등급별 영업자산 구성 변화



주1) 업체별 영업자산 합산 기준, 타 캐피탈사와 영업자산 규모 차이가 큰 현대캐피탈 제외

주2) 영업자산 구분은 업무보고서 기준이며, 기업대출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브릿지대출 성격의 토지담보대출 포함

자료: 업무보고서, 업체제시자료, 당사재가공

Q3. 2025년 상반기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정리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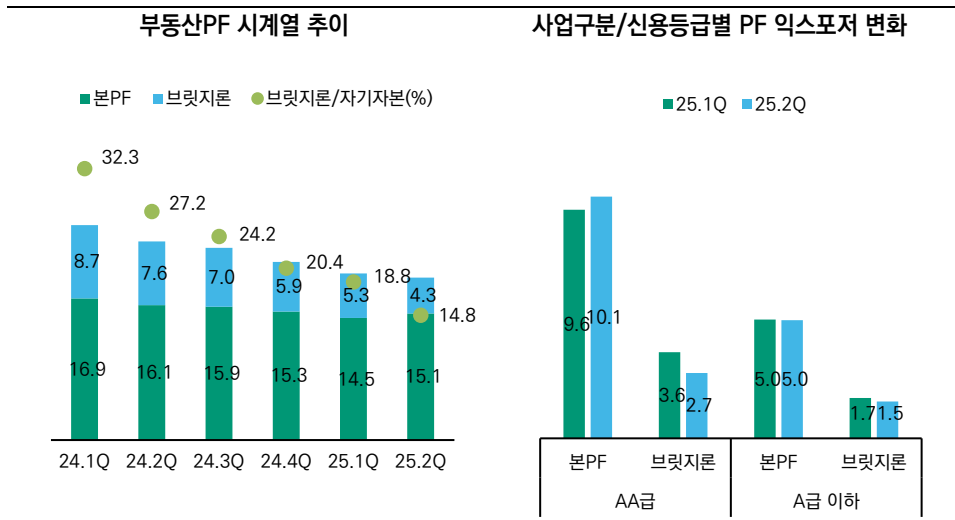
당사는 2025년 4월 “[Webcast] PF 구조조정, 어디까지 왔나 - 제2금융권 익스포저 잔존리스크 분석”을 통해 2024년 12월 말까지의 제2금융권 부동산PF 익스포저 정리현황을 제시하였다. 캐피탈업권은 2024년 6월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이후 2024년 말까지 부동산PF 익스포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부실 익스포저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연착륙 흐름을 보여왔으나, 추가 부실전이, 사각지대 익스포저 등 감안 시, 향후에도 적극적인 회수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분석 이후 2024년 12월 말부터 2025년 6월까지 캐피탈사의 부동산PF 정리 상황은 아래와 같다.

2025년 6월 말 분석대상 캐피탈사² 합산 부동산PF 익스포저는 19.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8조원 감소하였다. 가팔랐던 부동산PF 익스포저 감소 폭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PF의 양적 익스포저는 여전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25년 6월 말 본PF 및 브릿지론의 잔액은 각각 15.1조 및 4.3조원이며, 2024년 3월 말 32.3%에 달했던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부담은 2025년 6월 말 14.8%까지 축소되었다.

2025년 상반기 부동산PF 익스포저 변화에 있어서 특징적인 부분은 2분기에 사업구분(본PF/브릿지론) 및 신용등급별로 본PF와 브릿지론 익스포저의 변화 방향과 폭이 상이하였다는 점이다. **2025년 2분기에 브릿지론 잔액은 전분기 대비 약 1조원이 감소한 반면에, 본PF의 익스포저는 약 0.5조원 증가하였다.** 브릿지론 잔액은 A급 이하의 익스포저가 약 0.2조원(전분기 대비 9.1%) 감소하였으나, AA급에서는 약 0.9조원(전분기 대비 약 24.2%)이 줄어들면서 AA급의 감소 폭이 더 큰 모습을 보였다. 본PF 잔액은 AA급에서만 약 0.5조원이 늘어났으며, A급 이하는 익스포저를 유지하였다.

캐피탈사 부동산PF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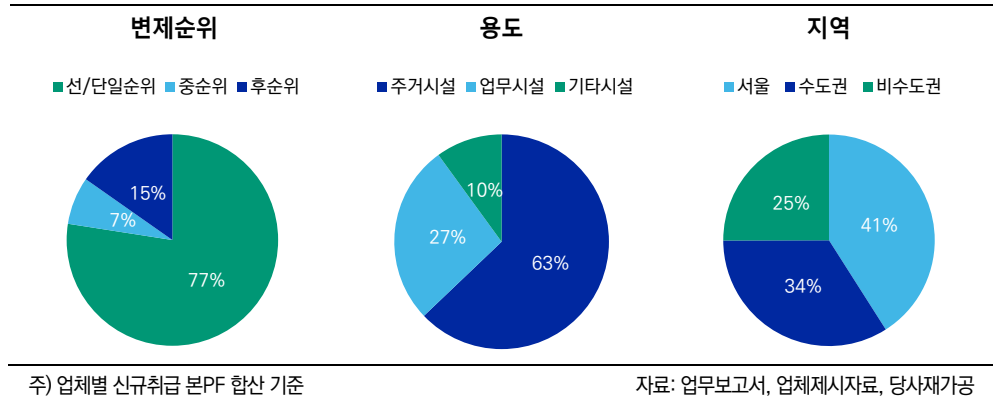
주) 브릿지론/자기자본은 각 업체의 비율 평균

자료: 업무보고서, 업체제시자료, 당사재가공

AA급이 2025년 상반기에 신규 취급한 본PF의 2025년 6월 말 기준 구성을 살펴보면, 선/단일순위 비중이 약 77%로 우세하며, 주거시설의 비중과 수도권 비중이 각각 63% 및 75%로, 비수도권 및 비주거용 시설의 취급 건은 전체 취급액 중 3.4%에 불과하다.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측면에서 부동산PF 양적 익스포저가 늘어나는 점은 부담요인이거나, 취급 여신의 현황을 참고할 때 비교적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위험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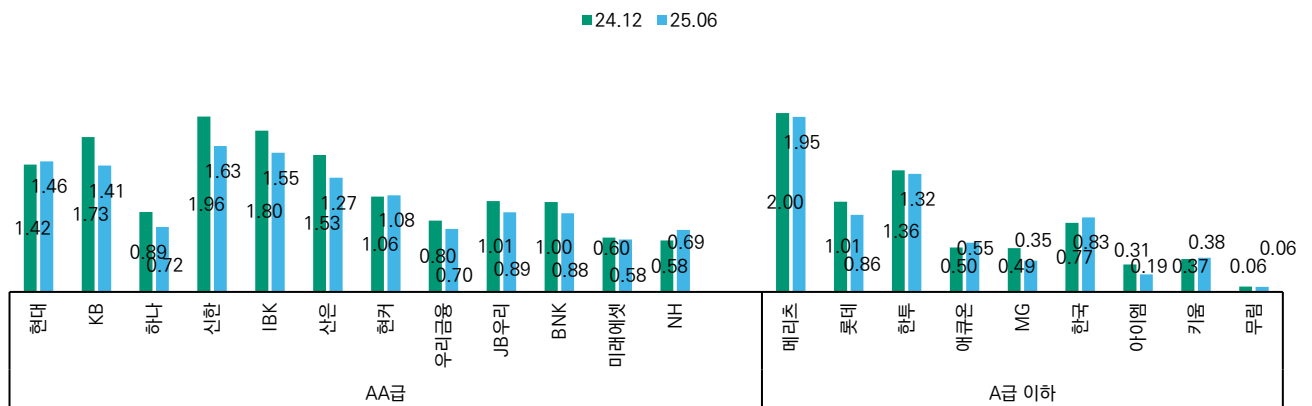
² 부동산PF를 취급하지 않는 롯데오토와 케이카를 제외한 21개사 기준

AA급 캐피탈사 2025년 상반기 신규 취급 본PF 구성



업체별 부동산PF 익스포저 현황(24.12 vs. 2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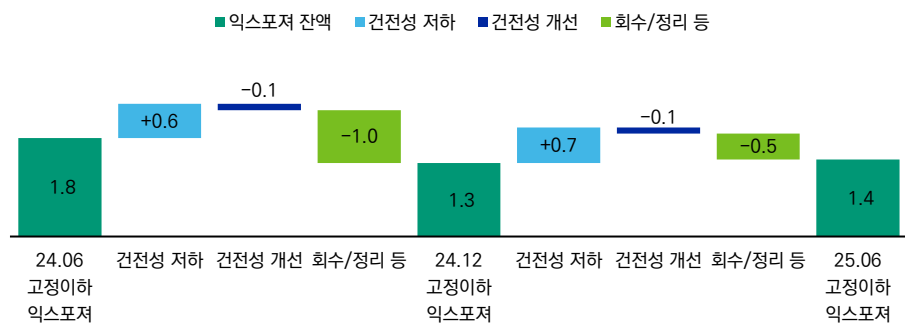
(단위: 조원)



2025년 6월 고정이하 부동산PF 익스포저는 1.4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1조원이 증가하였다. 고정이하여신의 세부적인 증감내역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 고정이하 전이 규모는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회수/정리 규모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치면서 고정이하 익스포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업체별 보유 부동산PF의 사업성, LTV, 상환우선순위, 총당금 적립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부실PF 정리가 지연될 경우, 건전성 관리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사업성 저하 등에 따른 상각/제각으로 인해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부실PF의 정리현황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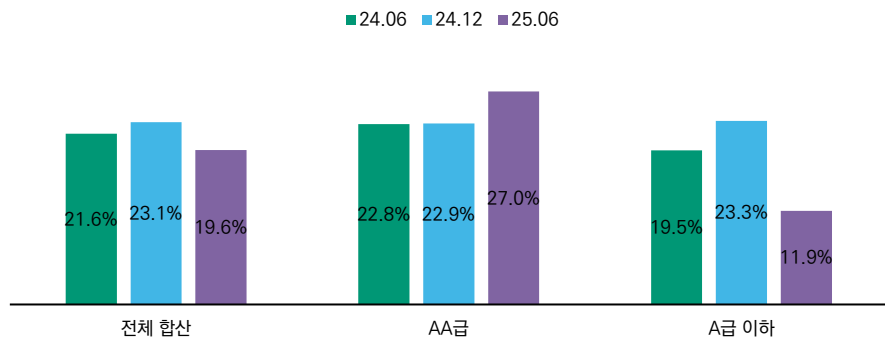
2024.06~2025.06 고정이하 부동산PF 익스포저 증감분석

(단위: 조원)



한편, 고정이하 여신의 총당금 적립률은 2025년 6월 19.6%로 전년 말 대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등급별로는 AA급의 총당금 적립률이 개선된 가운데, A급 이하의 저하 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급 이하의 총당금 적립률의 변화는 메리츠캐피탈에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MG캐피탈에서 대규모 부실 채권 상각에 따라 총당금 적립액이 감소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데, 해당 두 업체의 영향을 제외하면, A급 이하의 총당금 적립률은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AA급의 총당금 적립률이 개선된 점은 손실흡수능력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캐피탈 업권은 **타 업권과 비교할 때 총당금 적립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2024년 말 기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업권의 유의이하 PF 총당금 적립률 각각 48.1%, 21.3% 및 36.0%), **지속적인 총당금 적립률 제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부실 PF 정리의 필요성이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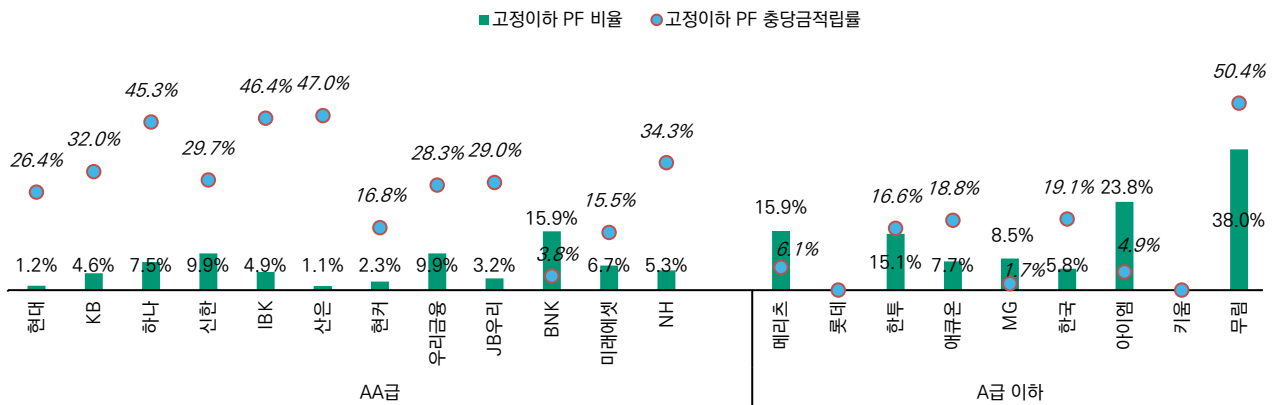
고정이하 부동산PF 총당금 적립률 추이



주) 메리츠와 MG를 제외할 경우, A급 이하의 24.12 및 25.06 기준 고정이하 부동산PF 총당금 적립률은 17.7%로 동일

자료: 업무보고서, 업체제시자료, 당사재가공

업체별 고정이하 부동산PF 비율 및 총당금 적립 현황(25.06)



주) 롯데와 키움은 고정이하 부동산PF 여신이 존재하지 않음

자료: 업무보고서, 업체제시자료, 당사재가공

Q4. 부동산PF 외 주요 자산군별 리스크 수준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견해는?

최근 조달환경 개선 등으로 캐피탈사의 신규 영업자산 취급여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 재배분 전략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주요 자산군의 위험 수준 및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Q3에서 상세히 다룬 부동산PF를 제외한 캐피탈사의 주요 자산군별 Risk Profile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할부/리스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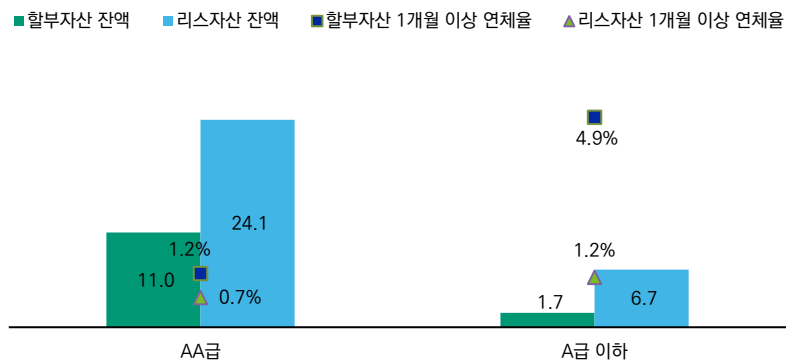
캐피탈사의 할부/리스자산은 승용/상용차에 대한 신차/중고차 금융과 건설기계, 내구재 관련 등으로 구분되며, 조달금리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영업력에 따라 신용등급별 상품구성은 다소 차별화되어 있다. AA급은 주로 신차/중고차 금융 부문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A급 이하는 신차금융보다는 중고차 금융, 건설기계, 내구재금융 등을 취급하고 있다.

최근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완화 측면에서 AA급을 중심으로 할부/리스자산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오토금융 내에는 과거 신차 구매 목적의 할부/리스금융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 타 업권의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구성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AA급을 중심으로 중고차금융, 렌터카 등에 대한 취급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AA급의 할부 및 리스자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각각 1.2% 및 0.7%이다. A급이하의 할부 및 리스자산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각각 4.9% 및 1.2%로, 할부자산의 연체율이 높으나, 할부자산 잔액은 미미하면서 연체율이 높은 롯데오토와 애플을 제외할 경우 A급 이하의 할부자산 연체율은 2.1%이다. 중고차금융 등 신규 취급 영역의 경우 차주특성, 담보가치 등 측면에서 신차 금융 대비 기본적인 부실위험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까지 할부/리스자산 전반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등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한다.** 또한, 물적금융의 특성상 담보가 확보되어 있고 담보물의 환가성도 높아 높은 회수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할부/리스자산 부분의 실질적인 Risk Profile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할부/리스자산 건전성 현황-2025.06 기준

(단위: 조원)



주1) 타 캐피탈사와 영업자산 규모 차이가 큰 현대캐피탈과 할부/리스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제외

주2) 연체율은 각 업체의 비율 단순 평균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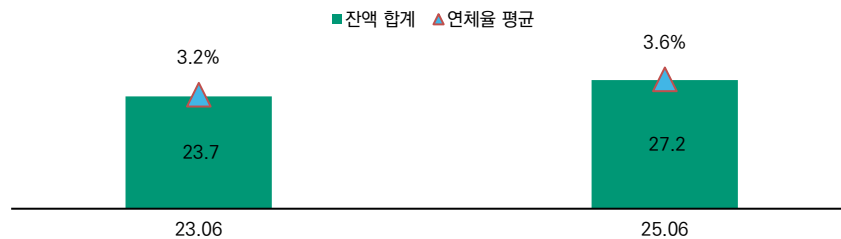
소비자금융(개인/개인사업자대출)

2025년 6월 말 기준 개인/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7.2조원으로, 2023년 6월 말 대비 약 3.5조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순차적으로 시행된 금융업권 스트레스 DSR 규제, 정부의 가계대출 강화 기조에 따른 풍선효과 등으로 최근 캐피탈업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 금융업권에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제2금융권도 소비자금융의 증가세가 억제되면서 캐피탈사의 개인/개인사업자대출의 확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은 중·저신용 차주로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경기변동에 따른 건전성 저하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다. 최근 개인/개인사업자대출 부문의 연체율 변화는 크지 않으나, 채권재조정 이후 연체채권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점, 업권 전반으로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정리되고 있는 채권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 둔화 등에 따라 소비자금융 부문의 건전성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개인/개인사업자대출 잔액 및 연체율 변화(23.06 vs. 25.06)

(단위: 조원)



주) 연체율은 잔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비율 평균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특히, 영업자산 내 개인/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큰 상위 10개 캐피탈사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전이율(‘정상 → 2개월 연체’의 최근 12개월 평균 기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카드사 대비 절대적인 연체전이율 수준이 높은 가운데, 최초 연체 이후 추가적인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향후 내수 경기 저하세가 보다 심화될 경우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취급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문으로 판단한다.**

카드사 및 캐피탈사 ‘정상 → 2개월 연체’ 연체전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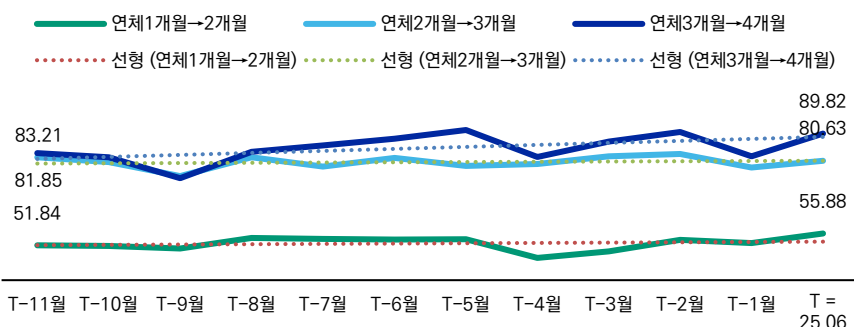
구분	2021.12	2022.12	2023.12	2024.12	2025.03	2025.06
카드사 평균	0.25%	0.28%	0.40%	0.40%	0.40%	
캐피탈사 평균 (10개 사)		0.37%				0.62%

주) 각 사 업무보고서 기준 최근 12개월 비율 평균이며, 가계대출에는 오토론이 일부 포함됨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주요 캐피탈사(10개 사) 가계대출 연체 전이율 추이(24.06~25.06)

(단위: %)



주) 선형은 '기준월(T = '25년 6월) -11월'에서 '기준월'까지의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기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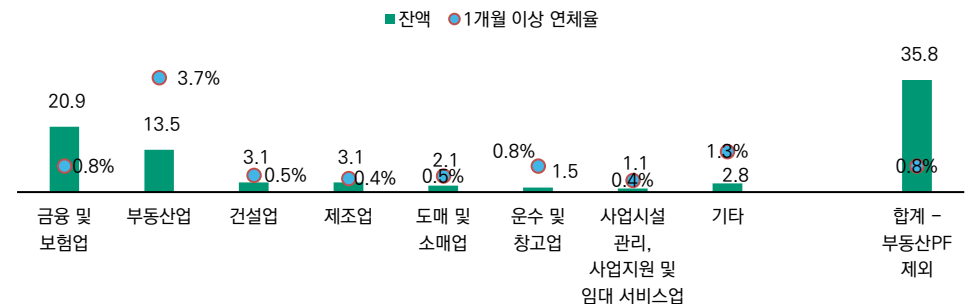
캐피탈사가 취급하는 기업금융은 부동산PF, 일반 운영자금대출, 담보대출, 유동화(ABL), 인수금융 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금융은 최근 수익성 확보 목적에서 신규 취급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동산PF 여신으로 인해 건전성지표 관리부담이 있어, 적극적으로 고위험/고수익 기업금융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A급 이하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완공된 물류센터, 오피스 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 대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또는 PEF 계열의 투자 등 목적의 인수금융 건 등 기업금융 취급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금융 부문의 업종별 취급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가운데,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에 대한 여신 비중이 높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 및 부동산업에는 SPV를 통해 취급하는 인수금융, 부동산개발사업, 완공된 부동산담보대출, 토지담보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고, 부동산업 관련 비중도 높아, 부동산 시장 동향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신용등급별로 연체율을 살펴보면, AA급의 경우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의 연체율은 모두 1% 미만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PF를 제외한 전체 기업대출 합산 기준 연체율은 0.8%이다. 이에 반해 A급 이하는 부동산PF를 제외하더라도 기업대출 합산 기준 연체율이 7.1%를 기록하고 있다. A급 이하 기업대출의 연체채권 내에는 메리츠캐피탈이 취급한 홈플러스 담보대출이 약 2,800억원 포함되어 있는 점(메리츠캐피탈 제외 시, A급 이하 연체율(부동산PF 제외) 평균 4.5%),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일부 캐피탈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건전성은 지표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A급 이하는 기업금융 부문에 대하여 보다 주의깊은 심사 및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AA급 기업금융 업종별 잔액 및 연체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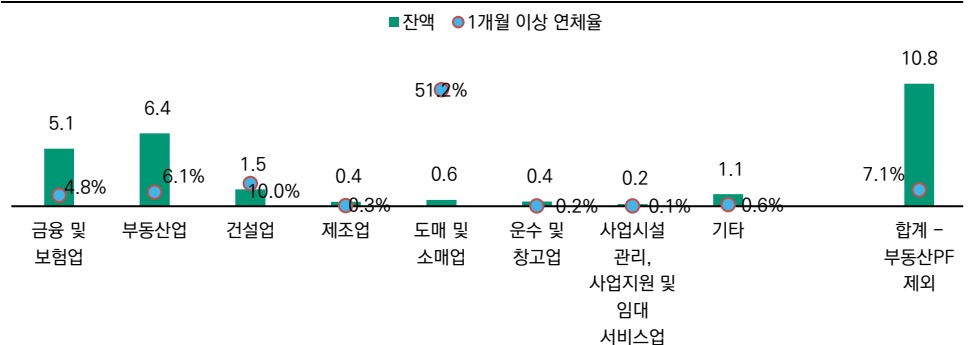


주) 연체율은 업체별 영업자산 합산 기준으로 계산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A급 이하 기업금융 업종별 잔액 및 연체율

(단위: 조원)



주) 연체율은 업체별 영업자산 합산 기준으로 계산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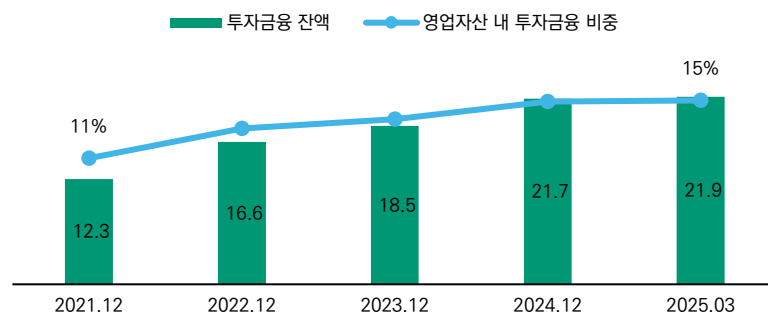
투자금융

캐피탈사들은 오토금융, 소비자금융, 할부·리스 등 기존 영업기반에서 영업 경쟁과 규제강화로 성장이 제한되면서 기업/투자금융 취급을 확대하는 영업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금융 수익성이 과거 대비 저하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더불어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타 업권과 영업경쟁이 심화되면서 투자금융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캐피탈사의 투자금융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금융 사업(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지분)과 메자닌증권, 펀드 지분 등에 대한 직/간접투자로 구분된다. 2025년 3월 말 기준 유동성 대응 목적 단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캐피탈사를 제외한 19개 업체의 투자금융자산 잔액은 약 21.9조원이며, 영업자산 내 비중은 약 15%이다.

투자금융 잔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조원)



주) 업체 제시 기준으로, 업무보고서와는 다소 차이 존재

자료: 업체제시자료, 당사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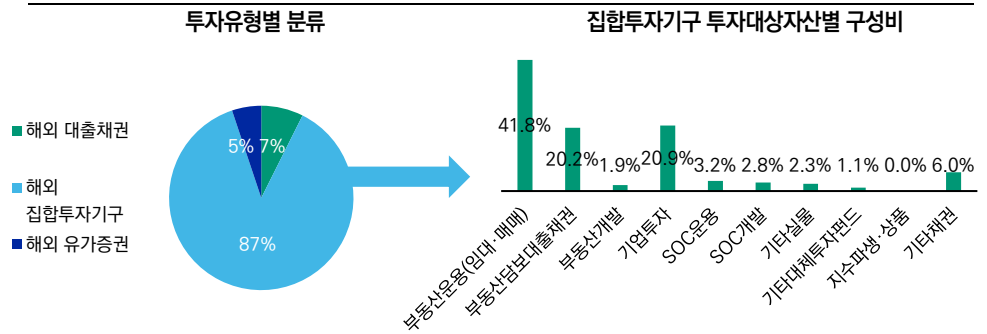
신기술사업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캐피탈사의 고유 사업 중 하나이나, 분석대상 캐피탈사 전반으로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높지 않다. 투자조합 설립분을 제외한 직접적인 신기술사업자산의 규모는 2025년 6월 말 기준 약 4.3조원으로, 이 중 3.4조원은 기업/투자금융 전문 캐피탈사인 신한, IBK, 산은이 취급 중이다. 신기술금융업은 유사 업종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투자업과 비교할 때 높은 자본금 부담, 업종 제한, 소비자 보호 등 높은 규제 강도 등의 영향으로 타 부문 대비 아직까지는 성장세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캐피탈업권의 투자금융은 상당부분 신기술사업 외 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PEF, 실물 등 대체투자 관련 펀드에 대한 지분출자, 기타 유가증권 직접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금융 부문은 투자기간이 길고 변동성도 높아 아직까지 AA급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취급 중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을 중심으로 취급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NPL, SS&D(Special Situation & Distressed) 펀드 투자 등 부문에도 투자대상자산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캐피탈사들이 투자하는 투자금융은 주로 다양한 상품에 소액으로 투자함으로써 분산투자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으며, 단순 주식 투자보다는 CB, BW 등 형태의 구조화된 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관련 위험수준이 일정수준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업권 전반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유형, 투자방식, 목표수익률 등이 상이하고 개별 투자 건별로 투자구조와 위험통제방식 등도 차별화되어 일률적으로 투자금융의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자부자산과 다르게 회수성과 및 시기에 대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경기과 자본시장 업황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 위험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투자금융 부문의 위험은 자산포트폴리오 위험, 자기자본 대비 부담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자산에 대한 집중도가 높거나 자기자본 대비 투자금융 비중이 과중한 경우에는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한다.**

한편, 캐피탈업권 내 해외 대체투자자산 익스포저가 높은 캐피탈사는 메리츠, 하나, 신한이다. 그 외 캐피탈사는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다. 2025년 6월 말 기준 3개 업체의 해외 대체투자자산 규모 합계는 2.6조원(신한 1.1조원, 메리츠 0.8조원, 하나 0.7조원)이며, 각 업체별로 총자산 내 비중은 신한 9.0%, 메리츠 9.0%, 하나 3.7%이다. 투자유형별로는 직접적인 대출채권이나 유가증권 투자보다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우세하며, 간접투자 내 투자대상자산은 메리츠와 하나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으며, 신한은 기업대출 익스포저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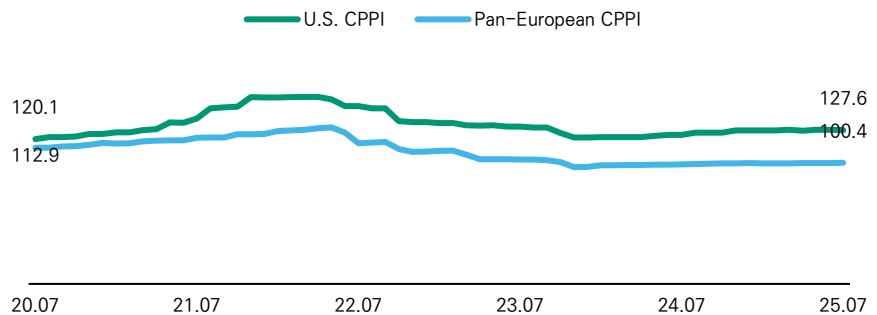
해외 대체투자현황(메리츠, 하나, 신한 합산)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메리츠와 하나는 최근 투자금용 내 해외 오피스 투자 건을 중심으로 손실인식이 지속되었는데, 이는 시중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오피스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문화 확대, ESG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우호적인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향후에도 해외 대체투자부분의 손실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5개년 미국 및 유럽 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



주) All Property 평균

자료: Green street

Q5. 최근 조달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캐피탈사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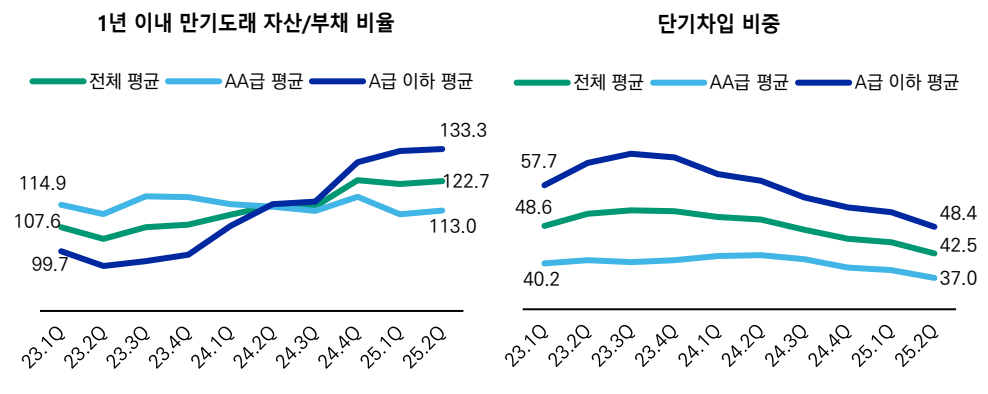
2024년 이전까지는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부동산PF 부실 등에 따라 여전채 수요가 위축되어 캐피탈업권 전반으로 비우호적인 조달환경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었다. 2024년 중에는 시장금리 하락과 REPO 펀드 등의 여전채 편입 확대, 일반 기업 회사채 대비 높은 Spread에 따른 투자매력도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캐피탈사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캐피탈사의 1년 이내 자산/부채 비율은 122.7%로, 2024년 4분기 이후 120%를 상회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A급 이하 캐피탈사의 경우 2025년 2분기 말 133.3%를 기록하면서 2023년 이후 최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를 포함한 단기차입 비중도 최근 하락추세가 지속되면서 42.5%까지 하락하였으며, A급 이하의 경우 2023년 3분기 64.7%까지 확대된 단기차입 비중이 빠르게 하향안정화되었다.

캐피탈업권의 조달구조 및 유동성은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다. 추가 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채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캐피탈업권 또한 그간 코로나19,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등 자체적인 관리기준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중단기적으로 기발행 차입부채를 상환/차환하거나 신규 영업자산 취급에 필요한 자금을 여전채 발행을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별도의 수신기능 없이 차입부채 조달을 대부분 시장성 차입으로 구성하는 여신전문금융사의 특성상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여전채 수요 증감으로 인한 지표 변동 민감도가 타 업권 대비 높은 만큼, 향후에도 면밀한 유동성관리가 필요한 점은 변함없다.

주요 유동성 지표 현황

(단위: %)



자료: 업무보고서, 당사재가공

Q6. 향후 캐피탈업권에 대한 전망은?

캐피탈업권은 자산 성장세가 다소 조절되는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발행 고금리 차입부채의 차환 과정에서 조달금리 하향안정화 효과가 이어지겠으나, 영업자산 취급 금리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자마진을 개선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국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금융 및 기업/투자금융 등 주요 취급 영역에서 타 업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또한 부담요소이다.

업체별 최종적인 수익성은 대손부담률의 차이에 따라 편차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부동산PF 관련 부실 확대로 고정이자여신비율,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저하되어 관리부담이 상존하며, 최근의 비우호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실물 경기 저하세를 고려할 경우 부동산PF, 소비자금융 등 주요 부문에서 대손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자산 내 위험자산 비중이 높거나, 총당금적립률이 Peer 대비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부실 인식이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업권 전반으로 대규모 대손인식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캐피탈사의 대손부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PF의 경우 2024년 6월 이후 개정된 사업성평가 기준 개편에 따라 상당수의 악성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부매각과 손실인식 등의 정리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각 업체별로도 영업자산 심사 강화, 채권관리 전담부서 신설 등 리스크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한다.

각 업체별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모니터링 하는 것 또한 캐피탈사의 향후 실적을 예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최근 캐피탈사는 보유 사업기반 및 사업전략에 맞추어 차별화된 부문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다. 신용등급 구분 내에서도 개별 업체의 사업전략에 따라 신규 영업부문의 차별성이 높으나, 대체로 AA급의 경우 전통적인 사업기반은 오토금융에 집중하고자 하는 한편,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본PF를 다시 늘리고 있으며 투자금융도 취급을 지속 중이다. A급 이하의 경우에는 PF 익스포저 축소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AA급 및 타 업권 대비 오토 등 할부/리스금융 부문에서의 영업력 차이 등에 따라 주로 기업금융 부문에 신규 취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전략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수익성 등 재무지표에 반영되면서 각 캐피탈사들의 실적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Appendix. 분석대상 캐피탈사 2025년 상반기 주요 재무지표

구분	AA급											
	현대	KB	하나	신한	IBK	산은	현커	우리금융	JB우리	BNK	미래에셋	NH
총자산(억원)	386,533	177,915	186,818	123,029	115,654	113,987	133,341	125,001	107,350	98,210	60,166	97,503
차입부채(억원)	308,238	141,468	146,651	99,492	94,835	88,886	111,211	97,357	87,844	75,894	43,129	75,843
자기자본(억원)	61,610	25,717	24,992	22,318	19,731	17,864	17,760	17,613	17,270	14,578	14,434	13,360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억원)	4,411	2,816	1,633	1,463	2,802	1,679	1,054	1,589	2,465	1,735	639	1,418
영업이익(억원)	2,881	1,620	170	600	2,765	1,759	723	888	1,522	927	630	647
당기순이익(억원)	2,462	1,251	155	483	1,420	1,414	999	676	1,201	702	488	441
연체율(1M+, %)	0.9	2.3	1.8	2.3	0.8	0.2	0.7	2.1	2.8	3.4	2.1	1.1
요주의이하여신비율(%)	6.0	6.4	8.6	7.7	3.0	2.1	5.8	6.0	6.0	8.9	2.8	3.0
조정 레버리지(배수)	6.3	7.7	7.9	6.0	5.9	6.4	8.2	7.5	6.9	6.7	4.2	7.3
1년 이내 자산부채 Cov.	130.8	96.4	116.8	143.8	117.0	85.6	134.0	124.8	117.8	107.8	96.1	85.4
ROA(%)	1.3	1.4	0.2	0.8	2.5	2.6	1.6	1.1	2.3	1.5	1.6	0.9

A급 이하											
구분	메리츠	롯데	한투	에퓨온	MG	한국	아이엠	키움	롯데오도	케이카	무림
총자산(억원)	93,062	88,914	60,053	40,163	24,765	47,577	43,982	30,883	5,325	6,436	4,097
차입부채(억원)	68,035	69,536	47,678	29,774	15,554	38,216	33,837	25,945	2,488	4,712	2,651
자기자본(억원)	17,855	16,025	11,855	9,174	7,169	7,057	6,688	4,684	2,197	1,616	1,379
총당금적립전영업이익(억원)	1,530	1,712	829	480	1	1,192	657	418	87	88	53
영업이익(억원)	920	802	532	315	(102)	600	360	360	57	84	28
당기순이익(억원)	730	615	418	243	(45)	462	284	247	53	66	25
연체율(1M+, %)	8.6	1.4	6.2	2.8	4.7	4.1	2.7	0.5	4.5	2.4	6.6
요주의이하여신비율(%)	14.4	5.3	13.9	6.5	19.3	9.6	7.9	5.0	4.5	4.2	12.2
조정 레버리지(배수)	5.6	5.7	5.4	4.4	3.5	7.5	6.6	6.6	2.4	4.0	3.0
1년 이내 자산부채 Cov.	137.9	137.4	164.4	125.9	158.5	110.9	117.3	147.2	171.8	104.8	90.5
ROA(%)	1.7	1.3	1.5	1.3	(0.3)	2.1	1.3	1.8	1.8	2.1	1.3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